

대구지방기상청,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, 한파 피해 예방 나눔 캠페인 실시

- 한파 영향예보 안내 및 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리플릿, 방한용품 전달 -

- 대구지방기상청(청장 김희철)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(사)꿈을 이루는 사람들(대표 진오 스님)과 협력하여, 2025년 12월 17일 구미시 지역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“따뜻하고 안전한 겨울, 한파 피해 예방 나눔 캠페인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.
 - 기상청은 2024년부터 한파·폭염 영향예보를 전달하고 (사)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를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맞춤 정보와 대응법을 전달함으로써 정보 확산체계를 구축해왔다.
-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어르신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,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▲반찬 나눔 봉사 ▲한파 영향예보 홍보 리플릿과 방한장갑 배부 ▲한파 대응요령 안내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.
- 대구지방기상청장은 “지역민들과 소통을 통해 겨울철 기상재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 며, “이번 캠페인이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 고 말했다. 구병화 구미외국인주민센터장((사)꿈을 이루는 사람들)은 “작은 나눔이지만 어르신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” 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 장	이동희 (053-282-0120)
		담당자	사무관	신건명 (053-282-0121)

